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작품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튜블러 자카드 조직을 활용하여-

이 하 정* · 이 연 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Tubular Jacquard Knit Wear Design through the Application of Keith Haring's Works

Ha-Jung Lee* · Younhee Lee⁺

Dep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투고일: 2010. 9. 7, 심사(수정)일: 2010. 11. 15, 게재확정일: 2010. 12. 15)

ABSTRACT

This study applied cartoon-like simple and implicit symbol of *Keith Haring* works to tubular jacquard knit, designed woman casual knit wear with fun, explicit and activities using fluorescent yarns with explicit feature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directions for new market pioneering that meets the emotional requirements of modern people by raising the level of utilization and expression area of knit fashion, and to present the constructive directions for high value-added knit wear by designing highly effective knit wear. Methods of this study examined the lifetime and artistic background of *Keith Haring* and collected his works through searching of internet, scholastic publications or thesis. Formative types and colors of works collected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 standards of *Haring* and characteristic formativeness and color of works were extra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shown below: First, the feature of his works can be summarized into motif that has symbolic and implicit cartoon-like lines including narratives as well as enormous number of works. Such feature is very suitable for variation and recombination in realization of design and has unlimited potentials for development. Second, image colors can be extracted such as black and white, original color and fluorescent paints, which reflects the intention of artist who put focus on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uch color feature is very suitable for design motif that has explicitness of reflecting the intention of artist through use of special fluorescent yarn. Third, I made it as reversible wear that has effects of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explicitness according to color area ratio using the feature of textures allowing use of both sides as well as form stability of tubular jacquard. Fourth, by adjusting the thickness of fabric with controlling of ply in fabric using poly yarn and wool union yarn, I could obtain good results of study in terms of technique that can express various materials with embossed dynamic effects of unevenness on flat surface.

Key words: casual knit wear(캐주얼니트웨어), keith haring(키스해링), knit design(니트디자인), tubular jacquard(튜블러자카드)

I. 서론

현대 패션 산업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패션산업의 변화 중 괄목할만한 점은 니트 제품 소비의 증가추세이다. 2005년 조사된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의 '의류소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의류시장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에서 니트의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¹⁾ 국내 니트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니트 수요의 확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디자인 및 차별적 기능성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디자인과 기능성 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한다면 니트 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키스 해링의 작품은 상징주의적 표현에 의한 간략화 된 선의 이미지와 만화의 칸 나눔 기법의 차용으로 함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적 특징을 갖는다. 이런 특징은 대중적이며, 동시에 개성이 존중될 수 있는 다수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패션 모티프로서 적합하다. 또한 작품의 방대한 양은 현대의 상디자이너가 요구하는 다수의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모티프로서 그 연구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이미지의 단순한 차용에 불과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소통성에 기인한 대중성과 작품에 이용된 원색의 칼라가 주는 직시성을 명시적 기능으로 전환 해석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살린 깊이 있는 패션디자인연구를 계획하였다. 특수섬유를 이용한 원단개발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살린 디자인을 계획함으로써 예술가의 내면적 가치가 부여된 창조적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디자인 경쟁력을 위한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겉면과 뒷면이 동일한 튜블러 자카드 조직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리버시블 웨어로 조형적 응용성을 살린 독창적 디자인으로 현대의상의 질적 향상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키스 해링 작품의 만화기법적인 간결하고 함축적인 기호와 같은 상징성을 이용하여 튜블러 자카드 니트 조직에 접목하였고, 특수 형광사를 이용하여 재미있고 명시성과 활동성을 갖는 여성복 캐주얼 니트웨어를 디자인하였다. 이와 같이 소통적이고 대중적인 작품을 추구하였던 키스 해링의 의도를 반영한 심미성과 기능성을 갖는 의상디자인을 제안하여 니트패션의 표현영역과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현대인들의 감성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시장개척의 방향을 제안하고, 니트웨어의 디자인과 고효율적 니트웨어를 디자인하여 고부가가치의 니트웨어 산업에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작품제작으로 구성하였다. 전문서적, 간행물, 패션 컬렉션, 신문기사, 선행연구,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하여 키스 해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적배경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해링 작품의 분석은 인터넷사이트 <http://www.haring.com>에 게재되어 있는 약 1000여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대표되는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해링 작품을 조형적 형태와, 기법, 선호색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관련 작품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모티프를 위한 소스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선의 요소를 이용한 상징적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모티프를 활용함에 있어 원단에 이용하기 위한기법으로 니트 편직을 선택하였고, 모티프를 컴퓨터로 패턴화하여 직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의 배경이 되는 이론을 정리하기 연구의 주된 편직기법인 컴퓨터 자카드 니트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하였다. 자카드 기법의 개념 및 특징을 알아보고, 자카드 니트를 종류별로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연구에서 주로 이용한 편직기법인 튜블러 자카드 니트의 특징과 컴퓨터 니트가 현대패션에 활용된 사례를 찾아보았다.

원사는 형광과 축광의 두 가지 특수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모티프 이용과 함께 작가의 의도를 패션디자인요소로 적용하여 전이시키고자 하였다. 빛에 반응하는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을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절제되고 간결한 선으로 구성된 작품의 효과를 최대한 살

리기 위해 모티프 재구성작업에 있어 수작업을 배제하고 어도비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키스 해링(Keith Haring) 회화에 관한 고찰

키스 해링(Keith Haring)은 1980년 시각예술학교를 중퇴하고 토니 샤프라지 화랑(Tony Shafrazi Gallery)에서 기획자로 일하면서 뉴욕 지하철역의 기한을 넘긴 광고 포스터들로 비어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는 초크 지하철 드로잉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이들과 자신의 예술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알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선명한 선과 관련된 실험들을 행했다. 자신의 태그로 알려진 빛나는 아기(Radiant Child)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짚는개(Brking Dog), 나는 비행접시(Flying Saucer) 등을 처음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타임스 스퀘어쇼' 그룹전에 참가해 자신의 작품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981년 '클럽57(Club 57)'과 '머드 클럽(Mudd Club)', 웨스트베스 페인터 스페이스, 할 브롬 갤러리등에서 여러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P.S. 122에서 전시한 대형 설치작품들은 후에 '소호 위클리 뉴스'에 실린 그의 첫 번째 전시평의 주제가 되었다. 이때부터 작품 판매로 이익을 얻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다원주의적 양상이 이전까지 서구의 문화를 지배하여 왔던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물결로 등장한 시기이다. 이성적이고 형식적이던 모더니즘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기존의 가치 체계 대신 수평적 다양성이 중요시되며 가변성이 수용된다. 그리하여 각각의 영역이 독자성을 수호하기보다는 상호 침투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것은 이론적 통일성 없이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고 절대적인 가치 없이 상대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Pruralism)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²⁾

1980년 여름에 해링은 그의 전 작품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양식적 특징을 갖춘 첫 번째 드로잉 연작을 제작했다. 이는 만화의 칸나눔 기법을 차용한 다음 시기의 작품에 기원이 된다. 해링의 작품에 사용된 도상들은 계획된 것이 아닌 순전히 우연에 의한 것으로 매우 상징적이었다. 비언어적이지만 구체적인 시각적 소통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상에 반하여 자신의 사회적 경험을 작품에 의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0년 겨울, 해링은 전통적인 교육을 거부하고 뉴욕의 거리에서 낙서미술을 처음 보고 곧바로 매료되었다.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에게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에 공감하였고, 그 소통의 힘을 작품에서 실현하였다. 같은 시기인 1980년 6월에 언더그라운드예술이 총망라된 '타임스 스퀘어 쇼'에 초청되어 참여하였다. 여기에서 케니 스카프와, 장 미셸 바스키아, 리퀴넌스, 패브 파이프 프레디, 푸투라2000등을 만나고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팝아트의 영향으로 윌트디즈니의 캐릭터들을 작품에 다루었는데, 본래의 인물들과 내포하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었다. 만화의 순간적인 인지방식을 위하여 캐릭터들을 작품에 포함하였으나, 작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기괴성과 공격적인 것으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전환된다.

1) 키스 해링(Keith Haring) 작품의 선과 형태

키스 해링은 만화적 기법으로 잘 알려진 예술가중 한 사람이다. 해링의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간결하고 함축적인 선과 그 선들로 이루어진 상징적 도상들이다. 만화의 대표적 기법인 칸나눔을 차용하여 내러티브가 있는 화면을 구성하였고, 이들은 또한 독립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하였다.

해링은 대중과의 소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가로서 작품에서 선은 대상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형식적으로 축약된 것으로 화면의 한정된 공간 안에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선은 항상 연속적이며, 우연의 법칙을 따르고 외곽선이 되어 형상을 이루고 상징이 된다.³⁾ 그의 작품은 함축된 선으로 되어있는 구상작품이다. 해링의 선은 스케치나 습작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수정, 실수, 비대칭이 존재

하지 않으며, 우연성과 확신성이 존재한다. 주변의 것들을 모사하고 통합했으며 사회를 관찰하고 이를 작품으로 가공하였다. 지하철 드로잉에서는 광고의 내용을 자신의 작업으로 포함시키는 콜라주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해링의 초기작품에서부터 이미 선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보인다. 이 선은 상형문자 같은 상징이 되거나 단순한 기하학적 구조 형태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해링은 이에 대해 “추상적이었던 초기 드로잉들은 이미지에 대한 암시가 가득했지만 결코 특정한 이미지를 갖지는 않았다. 그것들은 자동기술법이나 행위 추상에 더 가까웠다.(1984)”라고 언급했다. 그의 작품에서 선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내러티브를 갖는 구체적 상징물들로 자리 잡았다. 상징과 더불어 스프레이 물감 등으로 강조한 빛나는 후광이나, 일렉트릭 부기춤의 동작선에서와 같이 곡선, 직선, 지그재그선, 등 다양한 선의 형태를 이용해 함축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후기 작품으로 가면서 긴 선의 윤곽선 안에 짧고 비구상적인 추가적인 선들로 빼곡하게 채워서 배경적인 요소로서의 선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니멀리즘적인 기법으로 메시지의 절박함을 강조한다.⁴⁾ 초크 드로잉에서 인물들의 자세는 과장되고 절묘한 비례를 이루며 거의 모서리에 닿을 듯 강조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드로잉에서는 평온함이 전해진다.

해링의 관점에서 추상작품은 세상을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소통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77년 카네기 박물관에서 열린 피에르 알레친스키(Pierre Alechinsky, 1927~)의 내러티브를 가진 사각화면 구성은 이후 해링 작품의 기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⁵⁾ 해링의 드로잉 선은 연속성을 지닌 빠르고 유연하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를 나타낸다. 이 선들은 작품의 기본단위인 도상이 된다.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도상들은 단순성, 사실성, 보편성에 입각한 하나의 어휘로서 각각 이야기를 구성한다. 해링의 고유한 도상들은 만화 기호의 한 종류로 시각적으로 대상과 유사성을 가지며, 고도의 상징성을 내포한다.⁶⁾

해링의 후기 작품들은 여전히 선으로 채워졌지만 추상적인 비구상 작품이 된다. 그의 도상적 메시지는 직접성을 잃었으며, 회화 구조의 깊이는 내용측면에까지 확장되었으며, 그 결과 관람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더 어려워졌다. 인물과 기호는 병치되는 것에서 밀도있게 서로 엮이는 것으로 변했다.⁷⁾ 또 다른 작품들에서는 예전에 보이던 선의 긴장감이나 낙서같은 장난스러움은 사라지고 수묵화의 느낌을 주는 힘이 없는 듯한 선들도 나타난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가장 특징적인 형식은 칸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 만화에서 내러티브를 표현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형식으로 연속적인 시간관계를 표현한다. 이는 대중문화와의 경계를 넘나들고, 더불어 대중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해독’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식을 차용한 것이다.⁸⁾ 해링이 작품에서 만화적인 양식을 채택하게 된 것 역시 앤디 워홀 등의 팝아트 작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링의 작업들이 근본적으로 팝아트와는 구분된다. 팝아트는 단순히 어떠한 형태적 변형이나 왜곡도 없이 대중문화의 도상들을 그대로 차용한 반면, 해링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나, 피노키오 등의 대상을 은유적이며 작품에 재해석된 존재로서 차용하였다. 3차원적인 조각 작업에 있어 평면적이고 부피감이 없는 부드러운 선을 이용하였다. 춤추는 사람들을 묘사한 작품에서 서있는 사람의 배로 다른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는 등의 상호 융합된 형태로 표현하였다.

해링이 에이즈 양성판정을 받은 후의 후기 작품들은 이전의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향이 등장한다. 캔버스에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물감이 모서리로 흐르도록 한 후, 캔버스가 그대로 보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시기의 작품들의 내용은 선적이며 심오하고 추상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작품의 회화 구조는 스쳐 지나가는 대중이 단순한 모티프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키스 해링은 새로운 것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기호들의 축적을 그리거나, 그것의 조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그는 기호들을 배열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

지는 기본 단위로 보았다. 지하철 드로잉은 단순히 오락적 차원이나 빈 공간을 메우는 장식적 장치로 간주하는 것은 본래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다. 해링의 인물과 주제는 단순한 표피가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⁹⁾

해링은 10여년의 짧은 작품 활동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지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팝업을 열어 상업적으로도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 작품은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으며 또한 계속적인 도전과 발전으로 어느 특정한 기준으로 이 모든 작품을 구분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보편적인 조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정하여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표 1>로 정리하였다. 선이 보이는 특징적인 점과 주로 사용된 몇 가지 기법, 작품이 내포하는 상징적 의미를 기준으로 대상을 분류하였다.

2) 키스 해링(Keith Haring) 작품의 색채

키스 해링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선에 대한 애정은 색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뉴욕의 낙서미술에 관심이 많았다.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하고자 했던 그는 스프레이 물감으로 작업하는 대신 검은 마커펜으로 낙서가 지니는 소통의 힘을 작품에서 실현하고자 했다.

낙서화가들과의 작품의 영역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지하철 광고판에 드로잉 작업을 선택하였다. 처음부터 알려진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엔 경찰에 쫓기며 작업을 해야만 했다. 작업에 있어서 시간의 한계속에서 가능한 빨리 작업해야 하고 수정은 없었으며, 속전속결적인 퍼포먼스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검은 마커펜에서 끊어짐 없이 부드럽고 섬세하며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하얀 초크로 바꾸어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하철 빈 광고판의 검은 종이위에 흰색 초크선은 그래픽적으로 매우 강한 선을 나타냈으며, 지하철 작업에서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를 강조했다.

드로잉에만 집중하던 해링은 대형회화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비닐 방수포는 그림의 이상적인 화면이 되었다. 어떤 사이즈도 가능했으며 반짝거리는 색의 표현도 가능했다. 역시 제작이 빠르고 잉

크 방울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비닐 실크스 크린 잉크를 사용해 작업하였다. 비닐 방수포는 다양한 색의 사용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링은 외곽선과 색면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의 물감만으로 작업했다.¹⁰⁾

해링은 1982년 휴스턴 스트리트에 그린 벽화에서 어색한 3개의 눈을 가진 만화적 형상을 가진 캐릭터를 그렸다. 그는 이 벽화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빛을 내는 형광 물감을 사용했다. 해링은 이 물감을 3차원적 사물에 기초한 조각 연작에도 사용했는데 대부분 고전적인 흉상이나 기둥의 조각에 형광물감을 밀칠한 것이다. 1982년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스펙태컬러 광고판에서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이 상영되었는데 빛을 이용하여 빛을 내는 후광선이 그려진 아기도 포함된다.

해링의 이름은 두꺼운 검은색 윤곽선과 빛을 발하는 색면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양식을 연상시킨다. 비닐 방수포, 건물의 벽, 유리, 거푸집, 강철판 등 더욱 다양한 소재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등 섞이지 않은 순색도 선호하게 된다. 해링은 작업에서 색을 섞지 않았으며, 작품의 칠해진 색면은 명암이 없다. 이는 예리한 신호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관람자와의 즉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 되었다. 해링은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강한 명시성을 갖길 원했다. 원색의 사용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가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해링은 관람자에게 혼란을 주려는 의도로 만화의 순간적인 인지방식만을 차용한 것이다.

해링의 작품은 간결한 선과 원색의 색감으로 활기차며 낙천적으로 보이지만 정반대의 주제를 나타낸다. 결면적으로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해링의 독특한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에서는 해링의 작품에 쓰인 색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http://www.haring.com>에 게재되어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형태별로 분류하고 추출한 색을 NCS 색상환과 색 삼각형에 위치시켜보았다.

수집한 작품은 총 840점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었다. 백색의 배경으로 명쾌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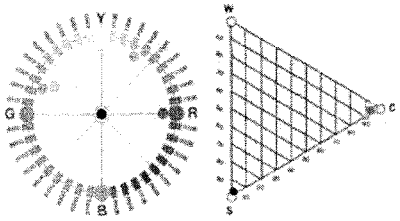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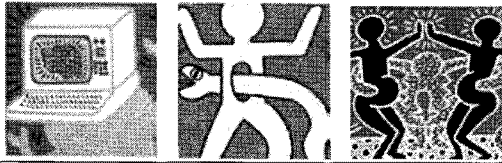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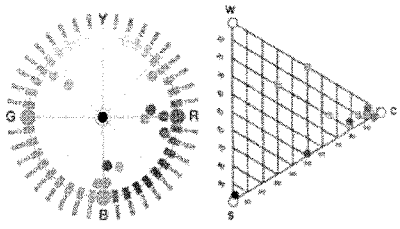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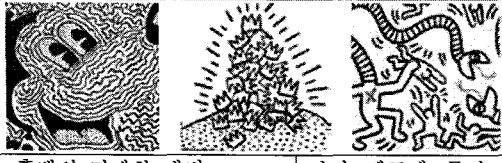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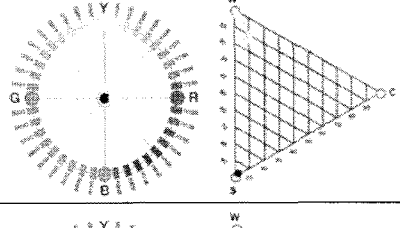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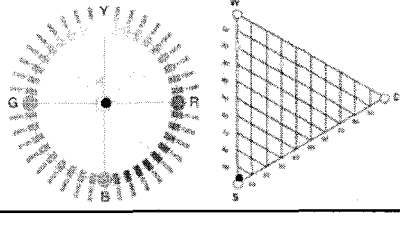
를 이용한 종류 약 401점, 강한 원색의 사용으로 밝고 명쾌한 분위기의 종류 약 316점, 흑색의 면으로 선명한 대비를 이용한 종류 약 94점, 형광의 색채를 사용

한 작품군 29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색의 특성상 형광의 색채를 사용한 작품군은 더 선명하고 강한 이미지의 명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키스 해링 작품에 나타난 선과 형의 조형적 분석

선의 구분		특징	사례		
전기추상형태의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구상적 -자동기술기법 -행위의 추상 -내포의미 없음 			
낙서의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라주기법 -광고에 낙서하여 그 이미지를 작품화 -선에서 느껴지는 빠른 속도감 -장난스러움 -상징적 의미 존재 			
카툰의 선	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칸나눔 기법 차용 -단순명료, 상징성, 함축적, 유머 -선의 긴장성, -진정성, 내러티브 존재 -동작선, 지그재그선, 곡선 -비교적 균일한 선의 굵기 			
	캐릭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윌트디즈니의 캐릭터 등 자본주의의 상징을 풍자적으로 재해석 -상징적 의미 존재 -유머러스하지만, 실체는 기괴하고 낯설고 공격스러움을 표현 -비교적 균일한 선의 굵기 -실크스크린적 표현기법 차용 			
후기수목화적인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상과 비구상의 중간 -선의 굵기가 다양하거나 긴장감이 없는 힘없는 선 -직시적인 내러티브 없음 -선의 농담과 선 두께의 변화를 이용한 수목화기법 			
후기 추상형태의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적 균일한 선의 굵기 -굵임없이 분포된 선 -내포의미 있으나 심오함 -주체의 즉흥적인지 어려움 -짧은 선들로 이루어진 배경과 긴 길이의 윤곽선 			
토속적구성의 선 =아즈텍 문명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바람 (Aztec new wa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형문자의 형태와 배열 -판화적 표현기법 차용 -바디페인팅으로도 표현 			

<표 2> 키스해링 작품의 색채 분석

작품의 형태	사례 및 특징	색채 · 색조분포도(NCS)
방수포, 고전적 흉상이나 복제품	 <p>-형광물감의 고채도보색대비 -검정라인등으로 형광의 속성을 강조</p> <p>형광물감</p>	
전반적인 작품 (방수포, 벽화, 카툰, 3차원 강철 조형물, 캔버스)	 <p>-고채도의 원색사용 -검정라인등으로 도상을 강조 배경과 분리</p> <p>아크릴물감, 실크스크린잉크, 페인트, 과슈 등</p>	
종이나 캔버스 위에 나서, 카툰	 <p>-흑백의 명쾌한 대비 -모티프의 윤곽선 강조</p> <p>마커, 펠트펜, 물감, 먹물, 잉크 등</p>	
지하철 검정 광고판위에 드로잉, 바디페인팅	 <p>-흑백의 명쾌한 대비 -모티프의 윤곽선 강조</p> <p>초크, 흰색 & 은색 펠트펜 등</p>	

2. 컬러 자카드 니트

편성물은 실 또는 끈이나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이상의 편사를 가로 또는 세로의 방향으로 서로 얽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루프나 링을 연속적으로 만들어 편지를 형성한다. 따라서 편성물에는 원단의 상태로 되어 재단과 봉제의 공정을 거치는 것과 처음부터 형태를 이루어가며 짜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를 편직물, 후자를 성형 편물이라고 한다. 또 편성물은 섬유의 물리적 성질과 직조 과정상의 구조에 있어서 직물보다 신축성이 크고 보온성이 높아서 이전에는 주로 방한용이나 내의류로 많이 사용되었다.¹¹⁾

니트웨어 제품생산 방식은 봉제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 상품은 크게 성형편 제품, 재단 봉제(컷 앤 소운, 컷 앤 링킹)제품, 인태그랄 니트 제품, 홀가먼트 제품으로 나누어진다. 재단 유무와 링킹 유무에 따라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따라 봉제방법이 다르며, 생산 원가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트 조직에 컬러무늬가 들어있는 조직은 컬러 자카드와 인타시아 조직의 편성물이다. 인타시아는 이탈리아어인 'Intarsiare'에서 유래된 말로서 인레이(Inray: 상감하다, 도장찍다)를 뜻한다. 배색 무늬를 만들 때 다른 실을 삽입하여 편직하는 방법으로, 배

색 부분의 뒷면 조직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도장 짙은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배색무늬에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¹²⁾ 디자인이 뚜렷하고 편물의 두께가 얇아서 최근 섬유 시장의 경량화 트렌드에 발맞추어 가장 선호되는 니트 조직이다.

자카드는 19세기 초 프랑스 리온의 '조셉 모리 자카드(Joseph Marie Jacquard)'라는 사람에 의하여 발명된 무늬 만들기를 위한 제직 방법으로, 편직에서도 다양한 무늬를 조직에 활용하는 방법이다¹³⁾. 칼라 자카드는 2가지 이상의 색상을 이용하여 편직하여 무늬를 만드는 것으로, 자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겉면과 뒷면의 모양과 배색이 다르게 나타나며, 뒷면에서 색사의 부출이 많기 때문에 자카드 편성물은 신축성이 크지 않다. 칼라 자카드는 뒷면 조직에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칼라 자카드 중 튜블러 자카드를 이용한 디자인 연구이므로 김영주의 연구¹⁴⁾와 유경민의 연구에¹⁵⁾ 나타난 자료 중 칼라 자카드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샘플 작업을 선정하여 <표 3>에 겉조직과 뒷조직의 차이를 사진자료로 정리하였다.

1) 노말 자카드(Normal Jacquard)

자기 색상 영역에서는 모든 바늘을 편직하고, 다른 색상 영역에서는 뒷 바늘로만 편직하는 조직이다. 가로 방향으로 신축성이 좋으며 3가지 칼라 이상이 되면 앞코가 너무 늘어나고 뒷면이 거칠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의도하는 무늬가 길이방향으로 무늬가 늘어나게 되며, 3도, 4도의 색상이 늘어나게 될 경우 더욱 심해지게 되므로 디자이너가 충분히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¹⁶⁾ All needle backing에 의하여 편성되는 조직이어서 실의 사용량이 상당히 요구되며, 이로 인해 완성된 편지는 두꺼워져 안정감이 있고 무거운 감이 들기 때문에 재킷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버드아이 자카드(Bird's eye Jacquard)

자기 색상 영역에서는 모든 바늘을 편직하고 다른 색상 영역에서는 뒷 바늘만 편직하는 노말 자카드에

서 뒷 바늘 중 선침된 것만 편직 되는 조직이다. 노말 자카드에 비해 뒷면이 거칠지 않고 원사 소요량이 적으며, 겉면 무늬의 늘어남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 무늬를 표현하기가 용이하지만, 역시 색상수가 많아지면 무늬가 늘어나는 현상과 편지의 두꺼워지는 현상이 노말 자카드 보다는 덜한 정도로 나타난다. 원사가 드러나는 노말 자카드의 단점을 보완한 자카드 기법이다. 4도 이상의 색상 표현에 적합하다.

3) 플로팅 자카드(Floating Jacquard, Single Jacquard)

2가지 이상의 실을 사용해서 자기 색상 영역에서는 앞 바늘로 편직하고, 다른 색상 영역에서는 웰트하여 편직하는 자카드 방법이다. 단판기에서 편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자카드이기 때문에 편치카 자카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조직의 특징은 무늬가 되는 실이 니트 되어 있는 곳은 다른 실이 턱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뒷면에는 무늬가 되지 않는 실이 떠 있다. 무늬가 확실히 나온다는 장점과 니트 되지 않는 실이 생지의 신축성을 적어지게 하는 단점도 있다. 원사 소요량이 상당히 절약되고 완성된 편지의 무게가 가볍다. 겉면의 무늬가 길이방향 늘어남 현상이 전혀 없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나타낼 수 있는 무늬가 사용하는 각각의 실에 대하여 1도 이내에서만 도안하여 디자인되어야만 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편지의 뒷면에 있는 떠 있는 편사 때문에 착용 시 불편하다(그림 1).¹⁷⁾

4) 튜블러 자카드(Tuibular Jacquard)

튜브(tube)와 같이 겉면과 뒷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에서 유래 되었다. 자기 색상 영역에서는 앞 바늘로 편직하고 다른 색상 영역에서는 뒷 바늘로 편직하는 조직이다. 자카드 편지 중에서 가장 두껍고, 2도인 경우 겉면과 뒷면의 무늬와 바닥이 색상이 반대로 된 같은 무늬가 나타나는 특징 때문에 의류제품을 디자인할 때 겉면과 뒷면의 조화를 이용하여 리버시블 형태의 디자인에 응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2).¹⁸⁾

5) 트랜스퍼 자카드(Transfer Jacquard)

뒷면의 실이 걸면에서 보이게 하여 무늬를 형성하는 조직으로, 바닥조직은 노말 자카드, 버드아이 자카드, 튜블러 자카드(1×1 backing, all needle backing), 블리스터자카드 등이 가능하지만 블리스터 자카드인 경우는 편직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바닥조직을 형성하는 편사 중 뒷베드의 바늘들에 편성되는 편사의 색상 선택에 따라 변화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색상선택에 신중을 기하여야만 돋보이는 편지를 얻을 수가 있다(그림 3).¹⁹⁾

6) 레더백 자카드(Ladder's Back Jacqu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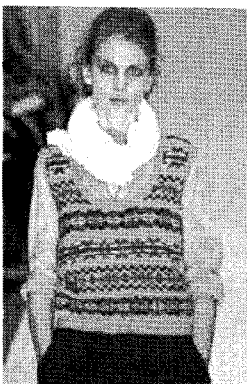
뒷면이 사다리모양과 같다고 해서 레더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튜블러 자카드와 플로팅 자카드의 중간 조직의 자카드라 할 수 있다. 레더백 자카드는 4도4까지 가능하지만 색상 도수가 많아지면 튜블러와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도2까지만 사용한다. 튜블러 자카드의 단점인 두꺼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한 조직으로 완성 후 편지의 무게를 줄일 수 있고 무늬의 늘어남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뒷 베드의 바늘 중에 강제로 선침된 바늘들에 의하여서만 편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색상수가 많아지거나 뒷 베드의 바늘들의 플로팅 거리가 3×1이상 이 되면 편직하는데 어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디자인 시 주의가 요구된다.

7) 블리스터 자카드(Blister Jacqu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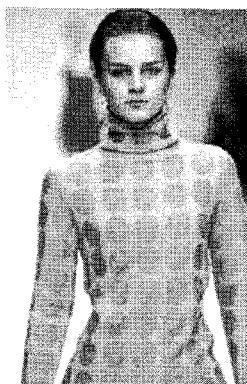
블리스터(Blister)는 '물 혹은 불에 의한 물질'이라는 의미로 부풀어 오른 무늬(용기 무늬)를 충칭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 일명 릴리프(Relief)라고도 하며, 직물에서는 예전부터 사용되었지만 니트에서는 20년대에 들어서 사용하게 되었다. 버드아이 자카드와 튜블러 자카드의 중각 조직으로 자기 색상 영역에서는 버드아이 자카드로 편직하고, 블리스터 영역에서 뒤는 버드아이 자카드로, 앞은 튜블러 자카드로 편직한다. 니트의 조직 중 앞 베드의 바늘에 의한 조직의 코 수가 뒷 베드의 바늘에 의한 코 수 보다 많은 유일한 조직이다. 싱글 블리스터의 부풀음은 적고, 더블 블리스터는 용기가 커서 블리스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앞 조직과 뒷 조직의 콧수를 다르게 하면 튜블러 자카드인 경우는 콧수가 많은 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있는 성질을 이용한 조직이다.

III. 디자인 전개

본 연구에서는 그 시대의 이슈화된 사건들을 함축적이고 풍자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작품의 만화기법적인 간결성과 상징성을 조형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키스 해링의 작품 요소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명시적이며 함축적인 모티프로 재구성하였다. 해링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선명하게 직관



〈그림 1〉 Margaret Howell
London, 2006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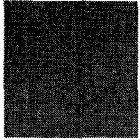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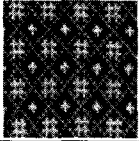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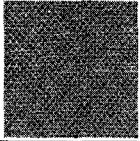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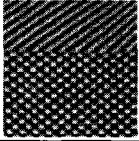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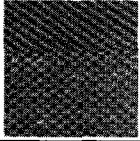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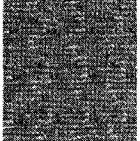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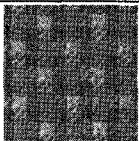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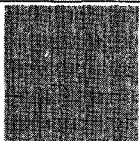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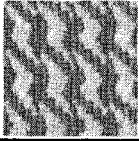


〈그림 2〉 Burberry Prorsum
Milano, 2003 F/W,



〈그림 3〉 Louise Goldin
London, 2008 F/W

〈표 3〉 컴퓨터 니트 자카드의 종류별 형태

조직명	형태 (겉면과 뒷면)	
노말 자카드 (Normal Jacquard)		
버드아이 자카드 (Bird's eye Jacquard)		
플로팅 자카드 (Floating Jacquard, Single Jacquard)		
트랜스퍼 자카드 (Transfer Jacquard)		
레더백 자카드 (Ladder's Back Jacquard)		
블리스터 자카드 (Blister Jacquard)		
튜블러 자카드 (Tubular Jacquard)		
		

적으로 내포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원색과 흑백라인 등 명시적인 색감과 형광안료를 사용함으로써 관람자와의 소통성을 선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작품들의 특징과 작가가 대중에게 생활 속의 일부분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명시적 기법을 중심으로 디자인 전개를 하였다.

니트 조직을 선택함에 있어 튜블러 자카드 편직을 기본으로 하였다. 형광의 폴리에스테르에스테르사와 아크릴 울 혼방사는 계절감이 다르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 조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티프의 명시성을 위하여 형광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선택하였다. 키스 해링의 작품에서도 형광의 안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작품과 모티프의 상관성을 살리고자 의도한 것이다. 여성캐주얼에 부드럽고 활동적이고 활용적인 면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크릴 울 혼방사를 선택하였다.

튜블러 자카드 조직은 2도의 색감으로 편직할 경우 겉면과 뒷면의 모티프와 배경이 반대되는 특성을 갖는다. 모티프와 배경의 소재와 면적비율에 차이를 주어 명료한 명시적 효과를 의도하였다. 겉면과 뒷면의 색 구성비 변화에 의한 느낌을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직조직의 특징을 살려 리버시블 착장이 가능하도록 모든 의상의 시점을 한쪽으로 접어 넘기는 방법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였다. 작품 제작에 있어 형광 폴리에스테르에스테르사와 울 혼방사의 꼬임의 정도가 다르고 합사한 실의 두께가 다르면 튜블러 자카드의 이중직 특성으로 인하여 편직면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실의 두께를 맞추기 위하여 모든 편직 게이지를 작품V의 코트(10GG)를 제외하고 12GG로 전체적으로 통일한다는 전제하에 작업을 진행하였다.

키스 해링 작품의 심플한 선적인 특징과 함께 각 작품들의 내러티브적인 연결성과 각각의 독립적 작품으로도 해석 가능한 특성은 디자인 모티프로의 활용가능성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는다.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니트웨어를 위한 모티프를 제안하였고, 기능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방향의 니트웨어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제안적 구성으로 계획, 제작하였다.

1. 디자인 전개 1: 원피스와 가디건

가디건은 키스 해링의 작품 중 「Wedding Invitation(1987)」, 「Icons 3(1990)」, 「Untitled(1985)」의 세 작품을 새로운 모티프로 재조합하였다. 해링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특징적인 동일한 도상들의 반복출현을 하나의 모티프로 연결하여 한 작품처럼 재구성하였다. 풍성하고 흐르는 듯한 라인의 가디건으로 제작하여

대상연령층의 확대를 위하여 여유있는 라인으로 디자인하였다. 위쪽 일부만 형광사를 사용함으로써 뒷면을 걸면으로 착장할 경우의 색상을 고려하고, 가디건의 등 부분의 면적이 넓어 폴리에스테르사와 아크릴 울 혼방사의 이질감으로 들뜨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라인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래쪽 형광사가 사용되지 않는 모티프는 일반평직으로 조직할 수 있지만, 회색배경에 검정 아크릴 울 혼방사를 이용하여 동일한 튜블러 자카드로 편직하였다. 12GG의 폴리에스테르 소재와 울 혼방소재의 1×2조합으로 편직하였다. 넓은 면적의 가디건이 무게로 인해 실루엣이 가려지지 않도록 두께감이 얇은 조직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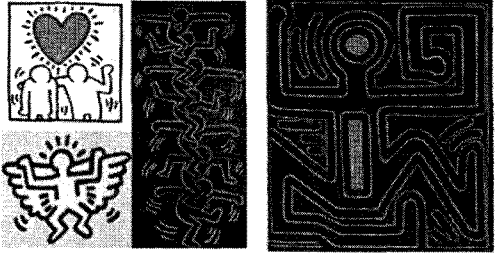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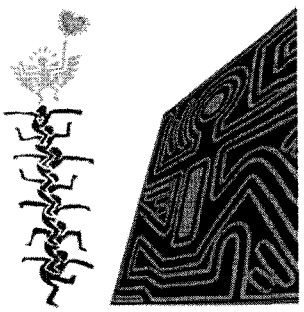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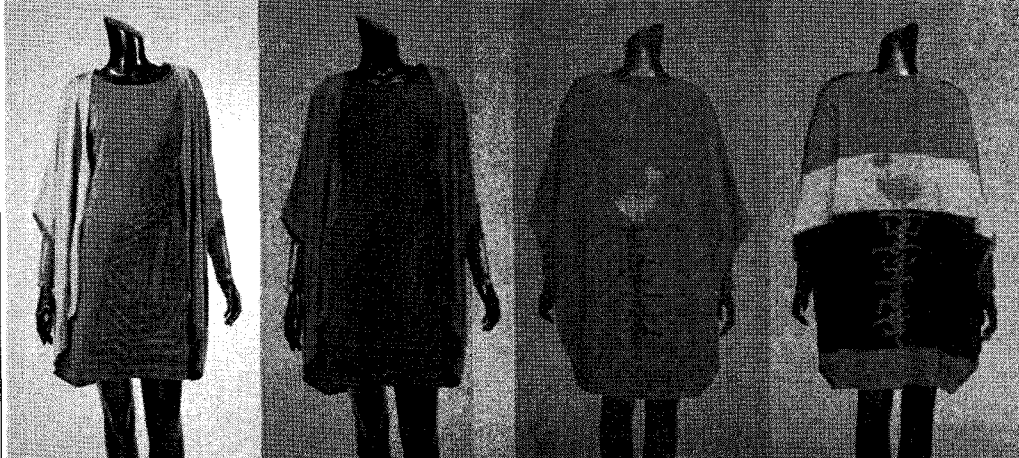
원피스 역시 튜블러 자카드 조직으로 리버시블 착장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Untitled No.8(1988)'의 직

선적인 선의 특징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도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적인 느낌의 사다리꼴로 변형시켰다. 이는 사선이 주는 착시 효과를 이용하여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고자 하였고, gray와 dark-gray의 색조합이 주는 무게감을 모티프에서 보이는 사선의 왜해 리듬감 있는 경쾌함으로 표현하였다. 손목부분에 pink의 형광사로 모티프의 일부분을 가늘고 길게 배치함으로써 시선을 분산시켜 도톰한 조직으로 인하여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점을 캐주얼한 느낌으로 보완하여 연출하고자 하였다.

2. 디자인 전개 2: 원피스와 레깅스 팬츠

작품 'Andy Mous(1985)',은 키스 해링이 앤디워홀

<표 4> 디자인 전개 1의 모티프 및 작품전개

<p>모티프 응용</p>	 <p>Wedding Invitation(1987), Icons 3(1990) Untitled(1985), Untitled No.8(1988)</p>	
<p>소재</p>	<p>polyester 150D(형광) 2합, A/W(50/50) 2합</p>	
<p>조직</p>	<p>튜블러 자카드 - 12GG 1×2 / 튜블러 자카드 - 12GG 2×2</p>	
<p>작품 응용</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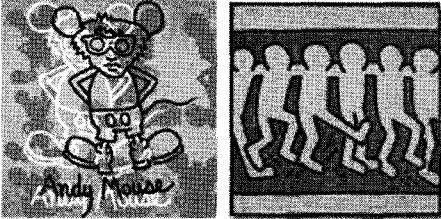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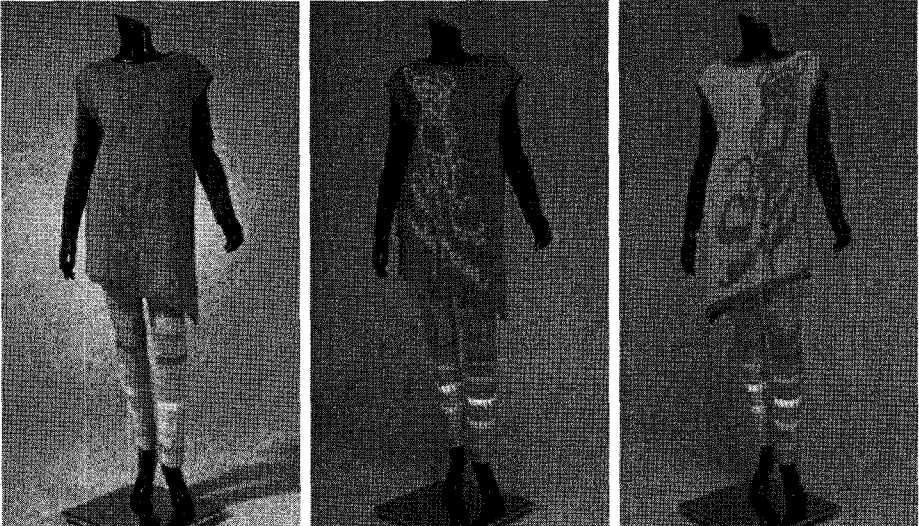
에 대한 존경을 위해 월트디즈니의 미키마우스와 앤디워홀의 이미지를 조합하여 탄생시킨 작품이다. 실크스크린의 엇갈려진 색면처럼 실크스크린의 기법을 차용한 드로잉작품으로 원피스에서는 앤디마우스의 간략한 선을 그대로 이용하되 수작업 외에 다른 기법을 이용한 듯 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여 디자인하였다. 어도비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형태의 기울기를 3차원적으로 변형시켜 원작 모티프의 평면적인 형태를 공간감이 있는 모티프로 재구현하였다. 이는 또한 완성된 옷을 입었을 때 사선의 느낌이 주는 체형보정을 위한 착시효과를 주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다.

원피스는 pink 형광사 3합과 khaki 아크릴 울혼방사 2합을 이용한 튜블러 자카드 조직의 편지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는데 두께감 있고 여유로운 실루엣이

자칫 둔탁한 느낌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완전한 보색대비를 이용하여 경쾌함을 살리고자 하였다. 밑단의 라인을 사선으로 처리해준 점도 같은 이유를 위한 것이다.

레깅스 역시 캐주얼의 느낌을 주기 위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였으며, 작품 Untitled No.3 (1988)의 모티프를 응용하여 스트라이프 무늬를 응용하였다. 상의의 원작에 사용된 조금은 증화된 파스텔톤의 보색대비 효과를 하의에 반영하기 위하여 키스 해링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원색 칼라 중에 캔디칼라의 느낌이 나는 칼라를 선택하였다. 이는 상의와 하의의 개연성을 두기 위한 디자인 의도이다.

<표 5> 디자인 전개 2의 모티프 및 작품전개

<p>모티프 응용</p>	 <p>Andy Mous(1985), Untitled No.3(1988)</p>	
<p>소재 조직</p>	<p>polyester 150D(형광) 3합, A/W(50/50) 2합 튜블러 자카드 - 12GG 1×2 / 튜블러 자카드 - 12GG 2×2</p>	
<p>작품 응용</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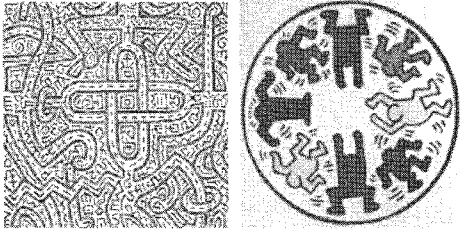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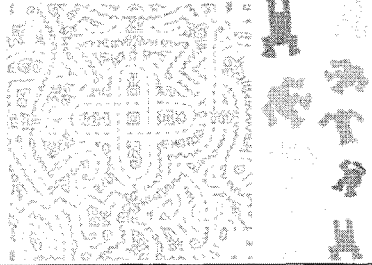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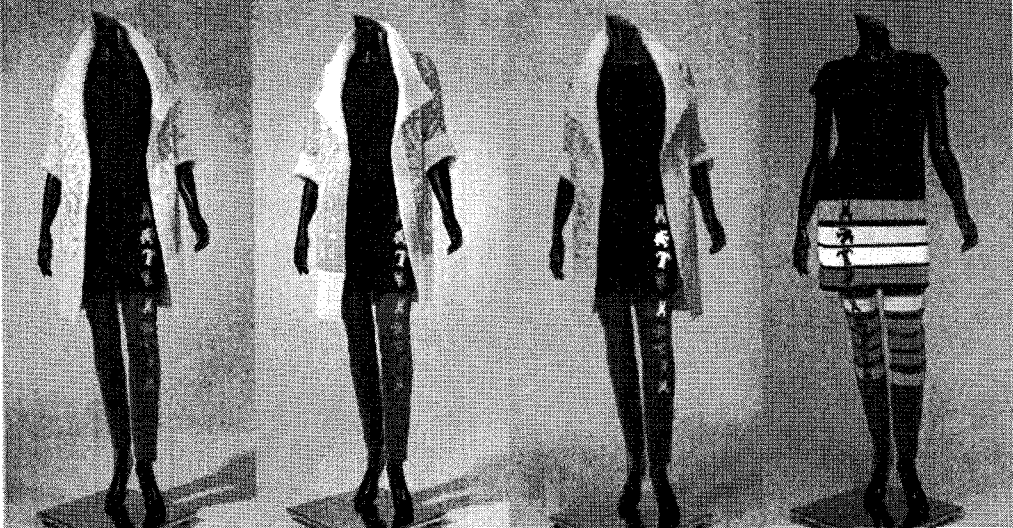
3. 디자인 전개 3: 코트, 원피스, 레깅스

코트의 모티프로 사용된 작품 「Untitled(1989)」는 키스 해링 활동 후기에 보여지는 유형이다. 긴 선의 윤곽선사이에 짧은 선들로 내러티브를 내포하지만 즉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심오함을 갖는 선형의 작품이다. 선으로 표현되었지만 복잡해 보이며 전형적인 보색의 사용은 복잡함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붉은색의 윤곽선을 제거하여 짧은 선들의 배치를 배경으로 전환시켜 배경의 색이 살아나게 함으로써 좀 더 단순화된 라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전체적인 컨셉이 여성 캐주얼 라인이므로, 코트는 아우터로서 다양한 디자인과의 자유로운 코디네이션 될 수 있도록 의도하여 제작하였다. 코트는 아

우터로 두께감이 있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10GG로 편직하였다.

원피스와 레깅스의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하여, 키스 해링 작품 Untitled(Swatch Design, 1986)의 유희적이고 만화적인 표현과 상징적인 도상들의 특징을 모티프로 하여 유머러스한 디자인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는 위트있는 디자인을 위해 모티프의 배치 위치 선정에 있어 고려한 부분이다. 원피스와 레깅스는 분리되어 별도의 아이템이지만 함께 착용할 경우 연결되는 라인으로 보이기 위해 착장시 일렬로 위치하도록 의도하였다. 레인보우 같은 색의 조합으로 뒤집어 입었을 때 같은 색으로 무늬가 반전됨을 이용하여 가로방향으로 전면과 같은 색이지만 배경과 모티프가 반전된 스트라이프 패턴이 나타난다.

<표 6> 디자인 전개 3의 모티프 및 작품전개

<p>모티프 응용</p>	 <p>Untitled(1989), Untitled (Swatch Design, 1986)</p>	
<p>소재 조직</p>	<p>polyester 150D(형광) 2합, A/W(50/50) 2합 튜블러 자카드 - 12GG 1×2, 고무편 7GG) / 튜블러 자카드 - 12GG 2×2</p>	
<p>작품 응용</p>		

4. 디자인 전개 4: 멀티솔, 가디건

작품 '20 Drawings(1989)',을 이용하여 모티프를 재구성 하였다. 이 작품 역시 해링 특유의 간결하고 명료한 선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만화적 기법을 차용한 작품으로 상징적이며 함축적인 특징을 갖는다. 수정없이 단번에 그려진 선의 느낌을 가지고 흑백의 명백한 대비에 붉은 선으로 모티프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독립된 작품으로서 역할을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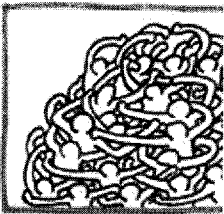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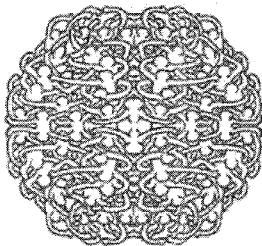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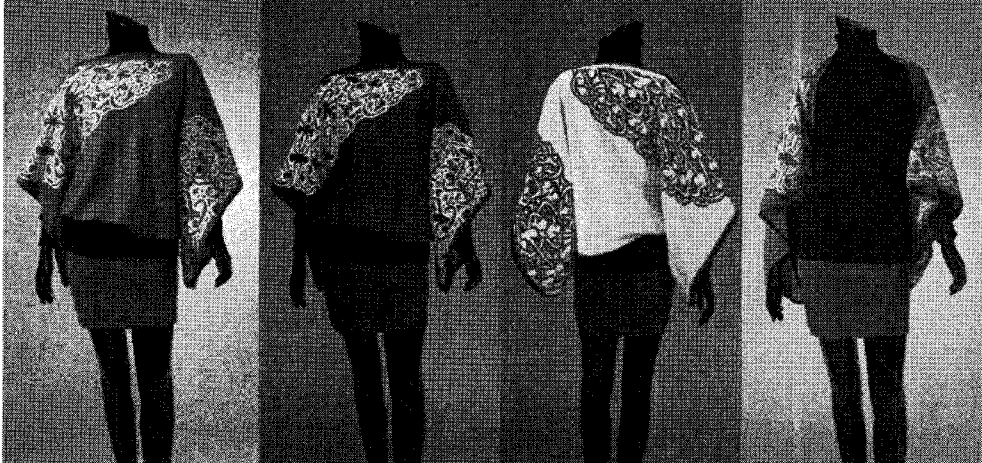
제작한 의상의 디자인은 멀티착장형태의 솔이다. 작품을 회전반복 시킴으로서 하나의 확장된 개체로 모티프를 구현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방향적 제한점을 개선시킨 모티프는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디자인의 모티프로 아주 적합하다. 모티프의 무방향성을 리버시블의 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착장이 가능한 다기능적 멀티솔의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작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솔, 원피스, 가디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디가 가능할 수 있기 위해 두장의 독립된 편지의 외곽을 니트 조직을 이용한 바이어스식으로 처리하여 겉면과 뒷면이 구분이 없도록 깔끔한 마감처리를 하였다. 각장이 마주치는 가장 자리의 겉면과 뒷면에는 스냅단추로 촘촘히 둘러달아 방향 없는 모티프의 특징을 이용하여 의복 자체의 방향성에 제한받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키스 해링 작품의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도상들의 특징을 이용하여 튜블러 자카드 니트 조직에 접목하고, 형광사를 이용하여 재미있고 명시적 기능과 활동성을 갖춘 여성복 캐주얼 니트웨어를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관람자와의 소통성에 중점을 둔 키

〈표 7〉 디자인 전개 4의 모티프 및 작품전개

<p>모티프 응용</p>	 <p>20 Drawings(1989)</p>	
<p>소재 조직</p>	<p>polyester 150D(형광) 2합, A/W(50/50) 2합 튜블러 자카드 - 12GG 1×2</p>	
<p>작품 응용</p>		

스 해링의 의도를 반영한 심미적, 기능적 의상디자인을 제안하여 니트 패션의 표현영역과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고부가가치의 니트웨어 산업에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키스 해링의 작품을 니트웨어디자인에 접목함으로써 회화의 예술성과 작가가 추구했던 작품의도를 패션디자인에 깊이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작품들을 수집 분석함으로써 짧은 생애동안 남겼던 수많은 작품들의 활용잠재력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구성요소와 형태, 색채를 분석하여 예술적 사고를 개발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키스 해링의 상징적이고 풍자적인 작품들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모티프로 재구성하여 여성복 캐주얼 라인에 적용하여 재미있고 경쾌한 니트웨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링의 작품의 특징은 방대한 작품 수 그리고, 내러티브를 포함한 상징적이며 함축적인 만화적 선을 갖는 모티프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특징은 디자인 구현에 있어 변형 재조합에 아주 적합하여 응용 잠재력에 있어 무한한 개발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해링의 작품은 흑백, 원색, 형광안료로 대표되는 이미지 색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대중과의 소통성을 중요시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이와 같은 색채 특징은 특수 형광사를 사용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명시성을 갖는 디자인 모티프에 아주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튜블러 자카드의 형태안정성과 양면의 사용이 가능한 조직의 특성을 이용하여 색의 면적비에 따른 명시성의 증감효과를 갖는 리버시블 웨어로 제작하였다. 이는 다변화적인 생활패턴과 다양한 기호를 가진 현대인들의 의복으로서 매우 적합한 조직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폴리에스테르사와 울 혼방사를 이용한 편직에서 원사 합수의 조절로 편지의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편지겉면에 요철의 부조적 입체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다양한 재질 표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기법적인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키스 해링의 작품을 니트 디자인에 응용하여 심미적이고 활동적이며 리버시블 디자인을 응용한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니트 디자인의 무한한 개발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니트웨어 산업이 세계 속의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 가능성 있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5). *의류소비 실태조사 보고서*.
- 2) 노버트 린튼 (1993).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서울: 도서출판 예경, p. 383.
- 3) Alexandra, Kolossa, 김울 역 (2006). *키스 해링*. 서울: 마로니에북스, p. 7.
- 4) *Ibid.*, p. 44.
- 5) John Gruen (1991). *Keith Haring. The Authorized Biography*. New York: Prentice Hall, p. 54.
- 6) 백준기 (2001). *만화미학탐문: 만화 텍스트의 기호적 구축을 위하여*. 서울: 다섯수레, pp. 63-104.
- 7) Alexandra, Kolossa, 김울 역, *op. cit.*, p. 85.
- 8) 임수진 (2003). *만화적 속성을 통해 본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작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 9) Alexandra, Kolossa, 김울 역, *op. cit.*, p. 27.
- 10) *Ibid.*, p. 31.
- 11) 이순홍 (2000). *편물*. 서울: 수학사 p. 9, p. 23.
- 12) 김영주 (2004). *수동 인타사 편기*. 서울: 한양여자대학, p. 252.
- 13) 김석근 (1996). *메리야스 공학*. 서울: 문운당, p. 68.
- 14) 김영주 (2006). Color Jacquard의 편성 특성과 니트 패턴에서의 활용방안. *패션정보와 기술*, 3, pp. 2-12.
- 15) 유경민 (2006). *아프리카 직물문양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임안나 (2002). *니트웨어 디자인을 위한 편조직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2.
- 17) www.samsungdesign.net/Collection/ForWoman/rDesignerListImage.asp?an=22&ItemIdxLondon&year1=2006&season=fw&Designeridx=Margaret+Howell 자료검색일 2010. 8. 25.
- 18) www.samsungdesign.net/Collection/ForWoman/rDesignerListImage.asp?an=14&ItemIdxMilano&year1=2003&season=fw&Designeridx=Burberry+Prorsum 자료검색일 2010. 8. 25.
- 19) www.samsungdesign.net/Collection/ForWoman/rDesignerListImage.asp?an=26&ItemIdxLondon&year1=2008&season=fw&Designeridx=Louise+Goldin 자료검색일 2010. 8. 25.